



# 제145회 발명교실

## 4월13일 성공사례 등 발표

본회가 주최한 제 145회 발명교실이 지난 4월 13일 발명장려관 연구실에서 개최되었다. 매일 둘째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최 되는 발명교실은 이번에도 1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발명교실에서는 신성산업 대표 신건영 사장의 성공사례 발표와 김현철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제도 해설 그리고 새생각회 강신목 회장의 발명의 발상기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발명가의 성공 사례를 간추려 소개한다. <이두성 記>

### 휴대용 레토르트 파우치 가열기 발명가

신성산업 대표 신건영

남을 수 있는 길은 제품의 독특함 밖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얘기이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하였다.

“한약을 데우기 위하여 매번 물을 끓이거나 전자레인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번거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것을 경험 하였을 것이다. 이런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을 쉽게 해결한 발명가가 신건영씨이다. ‘저는 영세한 소기업이 살아

‘레토르트파우치’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아직은 생소한 말이다. 풀어쓴다면 한약을 다려서 담은 비닐 용기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등장하게 된 발명품이라 하겠다. 요즘에 건강을 위해 한번쯤 한약을 달여 먹은 사람은 한약을 따뜻하게 데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